

오늘의 기사관

6일
행사
▲제 14회 전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개막식 오전 10시30분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22개 시·군 자원봉사자 등 522명 참여 예정. 5개 시·3개 군·4개 민간단체가 12개 부스를 마련, 봉사 활동 사진 전시. 이강현 불린터에 21 사무총장이 '아름다운 사회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특강. 43명에게 장관·도지사 표창.
▲2006 전파이용 활성화 토론회=오후 1시 여수체육관. 무선국 보유 시설·지역 어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전파정책 추진방향 및 무선국 검사 업무 설명.
▲목포 문화산업지원센터 개관식 및 목포문화산업발전 포럼=개관식 오후 1시30분 목포시 석현동 문화산업지원센터. 포럼 오후 2시30분 벤처지원센터.

제 14회 전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막식 오전 10시30분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최영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남 문화산업·IT의 현황과 발전 전망', 김기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콘텐츠연구단 책임연구원이 '한국 영화속 영상특수효과 기술', 이윤선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소 교수가 '전남 문화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김형서 대불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전남 문화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 발표.
▲영산강 하천용수 활용 국제 워크숍=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 C.Ray 미국 하와이대 교수가 '미국에서의 RBF(River Bank Filtration·강변여과) 공법 활용 현황', 김승현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RBF 공법 최적 적용 방안', 최희철 광주과기원 교수가 '토양 배수층 여과 공법 적용방안',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가 '지표수·지하수 연계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

▲1천포기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및 김장 김치 전달식=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유덕동 칠성마을.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 노인·영세민 등에게 김장 김치 전달.
(7일)
▲국제 나노과학기술컨퍼런스=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월출동 생산기술연구원. 미국 텍사스대 레이 바우만 교수, 일본 나고야대 히로야스 사카 교수 등이 연설. 8일까지.
▲광주시 자원봉사자 대회=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명 참여 예정. 29명에게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표창.
▲장성~담양 고속도로 개통식=오후 2시 장성군 장성을 수산리 장성 분기점. 장성~담양구간(25.3km) 왕복 4차로 도로.

▲제 84회 21C 담양포럼=오후 3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강운태씨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
▲제 514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할 U-하이웨이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 아버지협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사랑니눔 자선음악회'=6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내빛소리 정기연주회 '겨레여 겨레여 한겨레여'=6일(수)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42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퓨전음악회'=7일(목)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서예협회 진도지회 회원작품 전시회=7일까지 진도군 농협군지부 3층 전시실.
▲송죽회전=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
▲나래울 화원전=6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

뉴스퀴즈

41.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새벽(한국시간)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5개국 1만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15일까지 39개 종목에 424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4년 테헤란 이후 32년만에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개최 도시는 어디일까요.

- ① 도하 ② 바그다드 ③ 두바이 ④ 이스탄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돌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50 >



▲지나주 정답
펜촉, 종이바늘, 병따개, 못, 갈매기, 서클록, 담배파이프, 고무, 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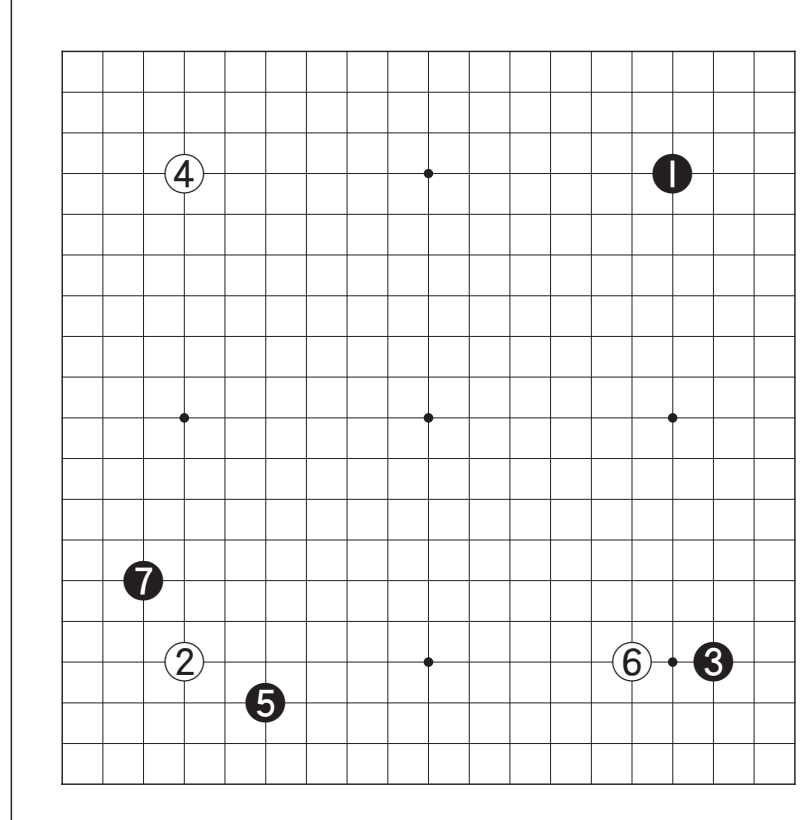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펜촉, 송사리, 대접, 못, 은행잎, 열대어, 갈매기, 종이배, 남자구두

←커지는 월급

저녁 퇴근길, 만원인 지하철 안.
아까부터 자꾸 남자의 그것으로 땀순이의 엉덩이를 툭 툭 치는 처한이 있었다.
잡다 못해 땀순이가 치한을 돌아보며 경고했다.
"야! 어디다 팔 것같은 거야!"
그러자 남자가 오히려 큰소리로 대꾸했다.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내 주머니 속 월급봉투가 좀 닿았을 뿐인데!"
이에 땀순이가 소리쳤다.
"야, 임마! 넌 잠깐 사이에 월급이 세 배나 커지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돌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오화섭·광주시 동구 학동
김상우·광주시 동구 산수동



제15회 대망의 결승전 개인전 결승국 1보(1~7)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다.
강자들의 숲을 헤치고 영예의 결승전에 진출한 두사람은 PCA생명의 이강민 5단과 포스코 돌풍의 주역인 정장효 5단으로 둘 다 첫 출전에서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누가 우승권을 안더라도 첫 출전에 바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강민 5단은 이지역 아마강자들의 산실인 전남대학교 바둑동아리 '오로' 출신. 그동안에는 활약이 없었는데 근래 부쩍 실력이 늘어 은근히 우승을 노렸다는 같은 팀 주장 김철 5단의 전언이다.
과연 기대대로 준결승에서 포스코의 유병수 5단을 꺾고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했다.
정장효 5단은 동부지역에서는 수차례 아마대회를 석권한 강자라고 한다.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연 명불허전으로 단번에 단체전 우승을 이끌지 개인전 결승에도 손쉽게 올라와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귀추가 주목되는 한편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 삼성화재배 준결서 첫승
이창호 9단은 5일 삼성화재 유성연 수원에서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준결승 3경기 제1국에서 백흑석 5단을 152수 끝에 백불계로 꺾고 기선을 잡았다.
이창호 9단은 이날 좌변 전투에서 백대마 일단을 모두 잡고 중앙을 틀어막는 과감한 사석작전을 펼치면서 승부에 쾌거를 박았다.
와일드 카드로 출전해 4강에 오른 서봉수 9단은 중국의 창호 9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7수 끝에 백 불계패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제2국은 이창호, 서봉수의 흑번으로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0월 16일 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791>

Did you know ~?
~을 알고 있었는가?
A: How are things going at your kids' school this year?
B: They are great. Did you know Michael is now the school principal?
A: No, I didn't. That is wonderful news.
B: Yes, that is why things are going so well.
A: 댁 아이가 다니는 학교 사정은 올해 어떤가요?
B: 훌륭해요. Michael이 지금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A: 아니요, 그것, 참 좋은 소식이에요
B: 예, 그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How are things going ~? : ~은 어떤가요?
Did you know ~? : 당신 ~을 아셨습니까?
- Did you know Michael is now a college student? Michael이 현재 대학생인걸 아셨습니까?
- Did you know Clinton is now the school principal? Cliton이 현재 그 학교의 교장인걸 아셨습니까?

오하이오 니혼고 <791>

韓國の成人の日はいつですか?
한국의 성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A: 韓國の成人の日はいつですか?
B: たしか5月の第3月曜日だったと思いますが.
A: 日本では、1月15日に各市町村(しちょうそん)で、成人式(せいじんしき)の式典(しきてん)が行(おこな)われ、祝賀會(しゅわかい)となります。
B: そうですね。これといった式典(しきてん)などはありませんが、各自(かくじ)で祝賀(いわ)いをするようですよ。
A: 한국의 성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B: 분명히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A: 일본에서는 1월 15일에 각 시·읍·면에서 성인식 의식이 행해지고 축하모임이 이루어집니다.
B: 글썄요. 이렇다할 의식 따위는 없지만, 각자 축하를 하는 것 같아요.
成人(せいじん)の日(ひ): 성인의 날
第(だい)3月曜日: 제3주차 월요일
市町村(しちょうそん): 시읍면
成人式(せいじんしき): 성인식

니하오 쑹구워 <509>

看不起
경멸하다, 깔보다
A: 那个矮个子的老头是谁?
Na gè ài gè de lǎotóu shì shéi?
(나 거 아이 잘 더 라오투포 수 셰이)
B: 你可别看不起他。
Nǐ kě bié kàn bu qǐ tā.
(니 커 비에 칸 부 치 타)
A: 他是谁?
Tā shì shéi? (타 수 셰이)
C: 他是咱们大学的校长。
Tā shì zánmen dàxué de xiǎozhǎng.
(타 수 쯤먼 따쉬에 더 시아오징)
A: 저 키 작은 노인네는 누구야?
B: 너 그 분 할부야 깔보지 마.
A: 저 분이 누구신데?
B: 저 분은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야.
矮个儿(àigèr) 키가 작은 사람
看不起(kàn bu qǐ) 경멸하다, 깔보다
校长(xiǎozhǎng) 교장

한자 이야기 <409>

偕老同穴(해로동혈)
함께 해, 늙을 로, 같을 동, 구멍혈
해로동혈(偕老同穴)은 살아서는 부부(夫婦)로서 함께 늙고, 죽어서는 같은 구멍에 파묻힌다. 부부의 굳은 약속을 뜻하고, 비익연리(比翼連理)와 비슷한 말이다.
이 말은 시경(詩經)의 두 편의 시에서 유래하였다. '해로(偕老)'란 말은 중군(從軍) 병사의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한 패풍(口風)의 격고(擊鼓)라는 시편(詩篇)이다. 전쟁터에서 고난과 싸워나가면서 문득 고향에 남긴 아내를 생각한다. 살거나 죽거나 고향(苦樂)을 함께 하고자 약속하고, 두 손 잡고 함께 늙어가고자 약속하였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함께 살 방도 없고 약속도 지키기 못한다는 내용이다.
'동혈(同穴)'이란 말은 왕풍(王風)의 대거(大車)라는 시편이다. 큰 수레 타고 멋진 옷을 입은 높은 사람이 무서워서 당신 있는 곳에 가지 못합니다. 살아서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죽어서는 같은 구멍에 묻힙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저 하얗게 빛나는 태양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살아서 함께 숨 쉬고 죽어 나란히 한 무덤에 묻히는 부부의 만남을 해로동혈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